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연서명을 받습니다

국민참여당이 통합 진보 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민주노동당이 2차 수임기관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빗발치는 질문에 대해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당대회를 비롯한 공식 석상에서 언제나 '논의된 바 없다' 며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우위영 대변인은 국민참여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성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의미있게 평가하며" 실천을 "기대한다" 며 사실상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당내 어떠한 의사결정기구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데도, 국민참여당이 '성찰' 했다는 아전인수식 평가를 내리며 당 수임기관 회의에서 참여당의 합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화답한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 때문에 진보정치세력을 통합해 "자유주의 세력과 구별되는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발전과 승리" (연석회의 최종합의문)를 향하겠다는 진보대통합 운동이 난관에 처했습니다. 비주류이긴 하지만 자유주의적 친자본가 정당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로 진보 통합 분위기는 혼란과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진보신당과의 통합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참여당과 통합 시도는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 지도부에서도 반발과 분열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의 '반성' 과 '노무현 정신 계승' 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당이 비정규직 확대, 한미FTA,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고 대중의 개혁 염원을 배신한 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진보정치세력에게 구애를 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야권통합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환영한다. 그리고 신뢰를 쌓고 싶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의 '성찰' 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으로 진보정치세력에게 던지는 추파처럼 보입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이런 국민참여당을 진보로 포장해주며 통합하려는 것은 국민참여당 지지자들을 진보로 견인하기는커녕, 진보적 대중마저 혼란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국민참여당의 평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투쟁 속에서 국민참여당 지도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진정한 진보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발전과 승리' 라는 진보대통합의 대의에 어긋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을 혼란과 분열에 빠트리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제안자 : 임성규(전 민주노총위원장), 김형우(금속노조 부위원장), 박승희(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차수련(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김소연(기륭전자 분회장, 금속비정규투쟁본부장), 이두헌(사무금융연맹 정치위원장), 이한진(사무금융연맹 연구실장), 유덕상(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유팔무(한림대 교수), 허석렬(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홍영두(경희대 외래교수)
이병수(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혜영(전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강석주(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장),
권혁태(민주노동당 서울 양천위원장), 김어진(민주노동당 서울 서초위원장), 김영규(민주노동당 충남 홍성 비대위원장),
김윤환(민주노동당 서울 강북위원장), 김은수(민주노동당 강원 원주시위원장), 김인식(민주노동당 서울 중구위원장),
김재헌(민주노동당 서울 종로위원장), 김진욱(전 민주노동당 강원 강릉시위원장), 김창희(민주노동당 경기 남양주시위원장),
박종기(민주노동당 경기 광명시위원장), 박종영(민주노동당 충북 괴산군 비대위원장), 서상영(민주노동당 경기 의왕시위원장),
여용옥(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전제완(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조윤경(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합니다

순번	이름	소 속	연락처	이메일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